

##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김종학 최보영\*

제주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예언 변인,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322명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 주제어 :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

† 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bychoi@jejunu.ac.kr

## I. 서 론

한국 사회에서는 조기 교육, 입시 위주 교육, 사교육 열풍, 등 학업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완벽주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잘 해야 되고, 더 잘 했어야 한다는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지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에서 절반 이상이 완벽주의자로 분류된 바 있다 (Grzegorek, Slaney, Franze, & Rice, 2004).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남들보다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한 완벽주의 신념을 강하게 하기도 한다. 더욱이 열악한 취업 여건 속에서 개인이 더 높은 기준을 갖추길 원하고, 빈틈없는 일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스스로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된다(김희주, 2014). 그러나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 개인은 대부분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다(Greenspan, 2000). 특히 Pacht(1984)는 완벽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완벽에 대한 추구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완벽주의의 특성이 대학생의 심리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구연익, 2010).

완벽주의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성격 유형으로 (Stoeber & Otto, 2006), 최근에는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김운희, 서수균, 2008; 김정미, 2009; 김호성, 김현숙, 2014) 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데 작용하는 부적응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빛나, 2010; 김호성, 김현숙, 2014). Hamacheck(1978)는 완벽주의를 정상적인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이후 완벽주의를 긍정적 완벽주의와 부정적 완벽주의로 구분 또는 함께 보는 다차원적 완벽주의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Burns(1980)는 완벽주의를 자신의 능력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향해 강박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으로 보고,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단일 차원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Pacht(1984)도 완벽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완벽하다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심리적 문제나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결국 자신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존재하지 않는 완벽에 도달하지 못 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책망하거나 전전공공해 하며 실수나 평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부정적 완벽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 스트레스, 걱정, 무감감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정, 손정락, 2007; 진소연, 2010; Chang, 2000; Chang & Rand, 2000; Rice, Ashby & Slaney, 1998).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수행의 지연, 자기효능감의 저하 등의 부적응적인 특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승진, 2000). 더불어 이재창, 최인화(2006)는 완벽주의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과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Hewitt 외(2003)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개인내적, 대인관계적 문제들과 더욱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자들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응적인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과 더불어 지각된 자신의 능력과 확신에 따라 적응 혹은 부적응의 심리상태가 된다고 하였다(최문선, 유제민, 현명호, 2005). 그러나 이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타인의 평가 및 사회적 상황은 이들에게 위협적인 자극으로 여겨질 수 있고(Hope, Gansler, & Heimber, 1989; 김다정, 2014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행동적 면에서는 강박행동과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높은 기대에 대한 지각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난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인한 지연 행동으로 이어 진다(윤숙경, 1996; Hamachek, 1978;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특히 대학생의 경우 학업과 취업준비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에 비해 완벽주의 신념이 강하고, 완벽주의가 부적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정해숙, 정남운, 2011). 이러한 이상적으로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으며, 실패를 했을 때 평가 절하되는 공격을 당했다고 여기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정해숙, 정남운, 2011). 결국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Enns, Cox, & Clara, 2002),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여 얻은 수행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Ashby, Rice, & Martin 2006).

완벽주의를 학습이론적 접근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부터 나온 학습된 행동이라고 보거나(Burns, 1980; Pacht, 1984), 인지이론적 접근에서는 의식적 사고가 인간의 정서적 행동과 도구적 행동을 중재한다고 보면서, 완벽주의적 사고를 비합리적 신념의 자동적 사고로 설명하고 있다(Ellis, 2002; Beck, 1976; Burns, 1980). 완벽주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부모의 과잉 교육열이나 성취지향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부모나 어린 시절 아동의 완벽주의를 들 수 있다(배주미, 2000; 김희영, 2008). 특히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한다면, 내가 더 잘한다면, 내가 더 완벽해진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꺼야'라는 신념이 완벽주의성향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Hollender, 1965).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진로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여러 진로 영역 중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가 많이 언급되어 왔다. 연구결과들은 진로발달 및 과

업은 기본적인 인성 변인들과 관계 되며, 그 가운데 완벽주의가 진로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이재창, 최인화, 2006; 이현주, 2011; 박혜선, 김봉환, 2013). 또한 인지적 접근으로서 완벽주의는 진로를 결정하거나, 결정한 진로를 확신하고 전념하여 진로 준비를 하는 등 진로과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김희주, 2014). 더불어 완벽주의자들의 심리적 태세가 결과 기대감과 효능 기대감 모두를 손상시키며(Burns, 1980),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 때 완벽주의와 관련된 부정적인 반응들 중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의 저하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정승진, 2000). 진로미결정 측면에서는,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수행불안, 결정 못함, 미루기와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심혜원, 1999)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진로 결정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의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과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시기로(Super, 1969),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신의 욕구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현실적 선택의 시기로(Ginzberg, 1988)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시기가 이러한 진로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입학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대학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생 상담소를 이용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조사결과와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김나래, 2013; 이지은, 이은애, 2013). 이러한 진로발달적인 측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주도성과 자신감이 있어야 나머지 진로에 대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다.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김민정, 2006; 유지선, 2005; Hackett & Betz, 1981), 진로미결정과(김은주, 2014; 한주옥, 2004), 진로성숙(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탐색행동(김민정, 2014; Bandura, 1997), 직업적 정체감(Robbins, 1985), 자존감(Lent & Hackett, 1987) 등과의 관계 연구에서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이은경, 2001; Betz & Hackett, 1981)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 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Lent & Hackette, 1987).

이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기저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충분하게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Frost, Lahart, Rosenblate., 1991), 부적응적 완벽주의 완화를 목표로 한 상담 및 치료 개입에 대한

효과연구도 매우 드물다.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완화해주거나, 조절해 주는 요인으로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 할 수 있다(신정옥, 2011).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조명실, 2007; 김효진, 2010; 이순자, 2012),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실, 2007).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광자(2004)는 진로선택시 부모의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명실, 최경숙(2007) 역시 사회적 지지가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정보를 수집,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상희(2015)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불안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 역할을 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준경(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개방 및 자기은폐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역할을 확인하였다.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Levitt, Guacci-Franco, & Levitt, 1994), Betz(1989)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했으며, 진로와 관련 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러한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송재영, 이현림, 2004). 또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한수현, 2003),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효진,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효능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ndura(1986)의 연구 이후에도 꾸준히 검증되어 온 여러 연구들(박현일, 김기원, 2001; Lent, Brown, 2008; Lent et al., 2001)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있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 인정, 물질적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 경험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는 강박행동과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변인과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제주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부생 3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자의 소속 교육학과 교수와 시간강사들에게 설문지의 연구 목적과 실시방법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설문지의 질문사항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설문시간은 약 20분 정도였으며, 설문지는 총 350부가 배부되었고 수거된 설문지는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자료 28부를 제외하고 총 3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92%이었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160명(49.7%), 여학생이 162명(50.3%)이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82명(56.5%), 2학년 69명(21.4%), 3학년 31명(9.6%), 4학년 40명(12.4%)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사회적 지지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각 문항은 조사대상자가 그들의 비공식적 지지체계인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의 다양한 측면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에 있어 지지체계를 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으로 안내하여 보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의 4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 반응양식은 '모두 그렇지 않다(1점)'에서 '모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수(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 역시 .95로 나타났다.

## 2) 부적응적 완벽주의

존재하지 않는 완벽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rost et al.(1990)이 개발한 Frost et al.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척도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을 한효정(2012)이 예비조사 결과 수행의심에 해당하는 17번 문항(“나는 깔끔하게 정돈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이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속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적응적 완벽주의에 가까운 개인 속성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사용한 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의 문항은 실수염려, 수행의심의 2가지 하위차원을 포함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한 한효정(2012)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5,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3에서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이었다.

##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etz, Klein과 Taylor(1996)가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수정하고 타당화한 것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직업정보 6문항, 목표설정 11문항, 미래 계획 5문항, 문제해결 3문항으로 4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5이었으며, 최화영(2015)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Window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Cohen 외(2003)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호작용 항을 만들기 전, 변인 간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작업을 통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중심화 한 후 상호작용 항을 생성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절 효과(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을 중다회귀 방정식에 대입함으로써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후 기울기를 구해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분석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20, r<.01$ ).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게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5, r<.01$ ). 한편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47, p<.01$ ).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표준편차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부적응적 완벽주의	1		
2. 사회적 지지	-.20**	1	
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5**	.47**	1
M	2.85	3.75	3.45
SD	.74	.53	.51

\*\*  $p<.01$

#### 2.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주효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변량의 22.0%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46.01, p<.00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beta=.46,$



$p<.01$ ). 즉, 사회적 지지를 잘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2단계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3.0%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고( $F=34.48$ ,  $p<.001$ ),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beta=-.16$ ,  $p<.01$ )은 유의미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영향에 대한 조절변인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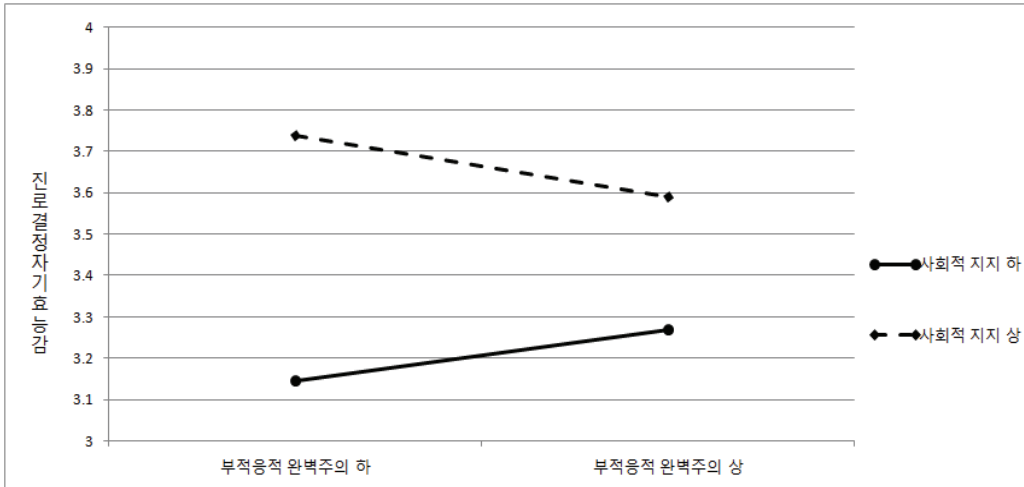
<표 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

단계	예측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beta$	t	R2	$\Delta R2$	F
1	부적응적 완벽주의(A)	-.06	-1.11	.22	.22	46.01***
	사회적 지지(B)	.46	9.10**			
2	부적응적 완벽주의(A)	-.01	-.23	.25	.03	34.48***
	사회적 지지(B)	.45	8.90**			
	A×B	-.16	-3.02**			

\*\*  $p<.01$ , \*\*\*  $p<.001$

위에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으로,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사회적 지지가 가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정작 두 변인 사이에서의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요인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완충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세 변인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반대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김빛나, 2010; 김희주, 2014). 그리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역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방어적 기제를 증진시키거나, 사회적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실수에 대한 염려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밀접한 사회적 지지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반대로 사회적 지지가 적기 때문에 더 부적응적인 것을 지향할 가능성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지수, 홍혜영(201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관계가 있으며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여준다(조명실, 2007; 박헌일, 김기원, 2001).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낮음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고 낮은 경우 모두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특히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홍영옥, 2011)를 재확인하였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적응적 완벽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어 높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게 되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게 될 때, 행동적 측면에서 강박행동과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높은 기대에 대한 지각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비난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인한 지연 행동으로 이어진다(윤숙경, 1996; Hamachek, 1978; Frost et al., 1990). 결국 완벽주의라는 완벽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하여 여러 가지 심리적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이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대상인 친구, 애인, 부모, 교사의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연구들(조명실, 2007; 한수현, 2003; 박헌일, 김기원, 2001)에 근거 하면, 가족, 친구, 교수 및 선·후배 등으로부터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와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적 지지,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 주는 물질적 지지, 칭찬이나 인정 등 자신을 평가해 주는 평가적 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4년제 대학생 집단으로 표본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세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각 변인에 하위요인도 구분하여 자세한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후속연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 표집에 학년별 분포가 고르지 않다. 각 학년의 표집 비율을 보면 1학년이 표집의 56.5%, 2학년은 21.4%, 3학년은 9.6%, 4학년은 12.4%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학년별 또는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게 하여 보다 대표성 있게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상담 접근적 함의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관련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상담장면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에 접근할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 또한 중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장면에서 대학생이 호소하는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이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상담 및 치료 개입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부적응적 완벽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부적응적 완벽주의 동향 중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 사이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지나친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과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비난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지지를 지원해주는 지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지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이 낮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호소할 때, 상담자들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 자신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지니고 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자가 대학생의 지지를 끌어들이게끔으로써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을 보일 때, 대학생의 지지를 통해 지지해줌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이처럼 상담 장면에서 부정응적 완벽주의를 지각하고 있을 때 느끼게 되는 부정적 감정과 사고 등을 지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여 대학생들의 원만한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연익 (2010). 남녀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 양식의 관계: 애착차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래 (2013). 대학생의 내적통제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다정 (201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06).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4). 대학생의 진로자기조절,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합리적 의사결정 및 진로탐색행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빛나 (2010).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부적응적 완벽주의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4). 대학생의 시간전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정미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정서의 관계: 자기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16(10), 205-225.
- 김호성, 김현숙 (2014).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국상담학회, 15(5), 1735-1750.
- 김효진 (2010).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손정락 (2007).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반복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183-205.
- 김희영 (2008). 어머니의 완벽주의와 심리적 통제가 남,여 아동의 완벽주의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주 (2014). 다차원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헌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계명연구논총, 19, 7-23.
- 박혜선, 김봉환 (2013).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343-357.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정옥 (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19(2), 109-141.
- 심혜원 (1999). 청소년 반발심과 문제행동 및 우울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영, 이현림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 양지수, 홍혜영 (2013).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통합치료연구, 5(1) 5-30.
- 이광자 (2004).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14.
- 이순자 (2012).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해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재창, 최인화 (2006).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53-872.
- 이지은, 이은애 (2013). 201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호소문제 분석. 학생생활상담, 31, 127-146.
- 이현주 (2011).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아해디캡전략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3), 21-39.
- 유지선 (2005).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소연 (2010).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 자기개념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상희 (2015).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진 (2000). 완벽성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최문선, 유제민, 현명호 (2005). 평가 염려 및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증대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1-15.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수현 (2003). 사회적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효정 (2012).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내적통제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특성불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준경 (2014).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자기개방 및 자기은폐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영욱 (2011). 가족체계,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연구: 조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shby, J. S., Rice., K. G., & Martin, J. L. (2006). Perfectionism, shame,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4(2), 148-156.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v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tz, N. 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 136-144.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 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 in college woma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399-410.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1.
- Chang, E. C.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positive and negative psychological outcomes: Examine mediation model in younger and older adul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7, 18-26.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7(1), 129-137.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ubois, D. L., Felner, R. D., Meare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1-522.
- Ellis, A. (2002). The role of irrational beliefs in perfectionism.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pp. 217-230).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ns, M. W., Cox, B. J., & Clara, I. (2002). Adaptive and maladaptive perfectionism: Developmental origins and association with depression prone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6), 921-935.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Frost, R. O., Lahart, C. M., & Rosenblate, R. (1991). The development of perfectionism: A study of daughters and their parent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5, 469-489.
- Ginzberg, E. (1988).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4), 358-363.
- Greenspan, T. S. (2000). Healthy perfectionism is an oxymoron.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1(4), 197-208.
- Grzegorek, J. L., Slaney, R. B., Franze, S., & Rice, K. G. (2004). Self-criticism, dependency,



- self-esteem, and grade point average satisfaction among clusters of perfectionists and nonperfectionis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192-200.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machec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ent, R. W., Brown, S. D., Brenner, B., Chopra, S. B., Davis, T., Talleyrand, R., & Suthakaran, V. (2001). The role of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in the choice of math/science educational options: A test of social cognitive hypothe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74-483.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Levitt, M. J., Guacci-Franco, N., & Levitt, J. L. (1994). Social support and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 multi-cultural stud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07-222.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Robbins, S. B. (1985). Validity estimates for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18, 64-71.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295-319.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 2-9.

## **Analysis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ng-hak Kim                      Bo-young Choi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firmed moderating effect by setting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predicting variable, social support as moderating variabl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dependent variable. The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322 university students regarding maladaptive perfectionism,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ladaptive perfectionism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hile social support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cond, a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at is, it turned out that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mean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Key words* : Maladaptive perfectionis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ocial support, Moderating effect